



GS리테일-신한은행, 경산에 혁신점포 3호점 개점

GS리테일과 신한은행이 31일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GS 25세대청운로점을 혁신점포 3호점으로 개점했다. 이번에 개점한 GS25세대청운로점은 양사가 공동으로 출점 지역을 선정하고 디자인 및 점포 구성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했다. GS25세대청운로점의 외관. /GS리테일



KT&G, 잎담배 농가에 건강검진비·장학금 지원

KT&G는 지난 7월 28일 국내 잎담배 농가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약 4억8000만원의 복지증진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원금은 잎담배 경작인 건강검진 비용과 자녀 장학금, 배풍열 연료저감장치 지원에 활용된다. 김정호 KT&G 원료본부장(왼쪽)과 김삼수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G

제주항공 유기동물 가족 찾아주기 캠페인



제주항공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바이트미'와 함께 유기동물 가족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1일부터 9월30일까지 두달간 진행한다.

제주항공은 동물자유연대의 도움을 받아 입양이 시급한 동물들을 위해 제주항공 객실승무원들이 함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입양을 돕는다. 실제 입양이 진행된다면 입양가족에게 축하선물로 제주항공 국내선 왕복 항공권과 바이트미에서 준비한 배변용품, 산책용품, 간식, 장난감 등 선물꾸러미를 지원한다. /허정윤 기자

인사

- ◆행정안전부 경찰국 ◇국장급 △경찰국장(치안감) 김순호 ◇과장급 △총괄지원과장 임철연(부이사관) △인사지원과장(총경) 방유진 △자치경찰지원과장(총경) 우지완
- ◆국방부 ◇과장급 인사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 신태복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 김경욱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 김혜윤
- ◆KR증권 ◇승진 △매크로투자본부 본부장 전무 김양길 △FI본부 전무 이석호 △구조화금융본부 본부장 상무 명세준 ◇신규채용 △채권본부 상무 채상희
- ◆데일리안 ◇편집국 △금융부장 부광우 △증권부장 이홍석
- ◆세계일보 ◇사회2부 △전남 주재 차장대우 김선덕

부음

- ▲심점희씨 별세, 감동훈(롯데지주 지역협력팀장·상무)씨 모친상 = 1일 오전, 부산 동구 인창요양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3일 오전 6시, 051-464-5858
- ▲강신일씨 별세, 강석란(전 서울신내초등학교 교장)·석윤(DB금융투자 부사장)·범석(개인사업)씨 부친상, 김혜곤(전 현대자동차 이사)·장광근(전 국회의원)씨 장인상, 주미정(여의도성모병원 병동간호팀장)씨 시부상, 강윤정(서울신길초등학교 교사)씨 조부상 = 1일 오전 1시,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02-3779-1526

“10년 장사 목표로 출점... 지속 소통으로 최적 솔루션”

인터뷰 | 이연에프씨 출점승인위원회 류성 본부장

한촌설령탕, 육수당 운영 기업 예비점주의 안정적 창업 지원 성향·능력·투자비 고려해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에 따른 취업률 하락으로 인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 창업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이에 최근에는 초보창업자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늘고 있다.

‘한촌설령탕’과 ‘육수당’을 운영하는 종합식품기업 이연에프씨(이연FnC)는 출점승인위원회를 통해 예비점주들이 쉽게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연에프씨 출점승인위원회 류성 본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출점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출점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중

하나를 꼽는다면, 점주 BEP(Break-even Point)다. 즉, 예상매출 대비 점포 임차비용은 적절한지, 투자비용은 언제 회수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 장사를 5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이연에프씨에서 운영하는 한촌설령탕과 육수당은 한 곳에서 10년 장사를 목표로 출점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 출점에 앞서 상권 정보와 경쟁점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 예정점포가 낼 수 있는 성과를 가능할 수 있다.”

-좋은 입지 조건을 꼽는다면

“기본적인 점포 조건은 ▲가시성은 좋은지 ▲접근성은 우수한지 ▲그리고 점포만을 위한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정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주의 성향과 운영능력 그리고 투자비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예비점주 상황이 자녀가 어려서 야간까지 시간을 빼기가 어렵고,



류성 이연에프씨 출점승인위 본부장

장사 경험이 없어 직원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 입지는 좋은 곳이 아닐 수 있다.”

-예비점주의 성향이나 상황이 점포 운영에 영향을 미치나.

“예비 점주의 상황은 점포 운영에

있어야 중요한 부분이다. 그 이유는 누구나 할 수 있는게 프랜차이즈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창업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지만, 누구나가 성공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금이 없고, 조력자가 없으면, 예비점주는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점주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연에프씨만의 프랜차이즈 운영 차별점이 있다면.

“40년의 축적된 매장 운영 노하우, 월 1억대 매출이 가능한 브랜드로 안정적인 수익 보장, 그리고 오송 스마트공장 준공을 통한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등 타 브랜드 대비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 이연에프씨가 가장 잘하는 한가지는 가맹점과 소통하는 회사라는 점이다. 점주들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점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워크샵을 통해 매장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인공근육 구동기 웨어러블 확장’ 논문 네이처 게재

삼성전자-아주대 공동 연구팀 초경량·초박형 다기능기 설계

삼성전자와 아주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초경량·초박형 인공근육 구동기에 관한 연구 논문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최근 게재됐다.

1일 삼성전자는 “이번 연구는 기존 로보틱스 분야에 주로 활용했던 인공근육 구동기의 활용도를 소형 웨어러블 분야까지 확장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구동기는 압력을 가해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인공근육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삼성전자-아주대 공동 연구팀’에는 ▲신봉수 삼성전자 연구원 ▲고제성 아주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김동진, 김백겸 연구원이 공동



(왼쪽부터)신봉수 삼성전자 연구원, 아주대 연구팀의 김백겸, 김동진 연구원과 아주대 팀을 이끄는 고제성 교수. /삼성전자

1저자로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연구팀은 형상기억합금 기반의 다기능 인공근육 구동기를 개발하고, 이를 AR 안경(안경형 증강현실 기기)과 촉각 전달장갑(햅틱 글러브) 등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해 인공근육 구동기의 진일보된 기술과 실사용 가능성을 입증했

다”고 설명했다.

가상 환경 분야에선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구동기와 센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R·VR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되는 구동기와 센서는 착용 편의성을 위해 작고 가벼우면서도, 복잡한 시각·촉각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연구팀은 기존 전자기 모터 기반 구동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형상기억합금 기반의 인공근육과 유연 소자가 결합된 초경량(0.22g)·초박형(5mm 이하)의 다기능 구동기를 설계하고, 웨어러블 기기에서 실제 효과를 입증했다.

AR 안경에 적용한 결과, 연구팀은 사용자가 느끼는 시각 피로도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해당 구동기가 물체의 초점 거리에 따라 디스플레이와 AR 안경 광학계 사이의 거리를 직접 조절함으로써 시각 피로를 유발하는 수렴조절 불일치 현상을 완화했다.

또 촉각 전달 장갑에 적용한 결과, 연구팀은 실제 손으로 누르는 것과 유사한 촉각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아마추어 스포츠 미래 밝힌다 SKT, 유망주 4명 공식 후원

3년간 훈련 지원금·케어 등 지원

SK텔레콤이 대한민국 아마추어 스포츠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에 대한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 저변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SKT가 후원하는 선수는 지난 도쿄올림픽을 통해 한국 수영의 간판 스타로 떠오른 황선우 선수(19세)를 비롯해 포스트 장미란으로 불리며 한국 역도의 미래를 책임질 박혜정 선수(19세), 리듬체조 최연소 국가대표 손지인 선수(15세), MZ세대

중심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케이트보드의 조현주 선수(15세) 등 네 명이다.

그간 SKT는 2007년 수영 종목의 박태환 선수를 시작으로 아마추어 스포츠 유망주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한국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KT는 새롭게 후원 계약을 맺은 선수들에게 향후 3년간 ▲훈련 지원금 및 국제대회 성적 인센티브 지급 ▲멘탈 케어/컨디션 관리 등 최고 수준의



SKT와 후원 계약을 체결한 4개 종목 국가대표 유망주.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황선우(수영), 박혜정(역도), 손지인(리듬체조), 조현주(스케이트보드) 선수. /SKT

지원을 제공해, 내년 열리는 한겨울 아시아안계 및 2024년 파리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서 선수들이 최고

의 경기력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채윤정 기자 echo@